

의원 재량으로 쌈짓돈 지출… 광주 북구, ‘재량사업비’ 고심

주민 숙원사업비 명목 3000만원
민원 해소 순기능 vs 예산 오남용
행정안전부·감사원, 폐지 권고

광주 북구가 각 사업 부서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구의원 개인 봇으로 정기 배정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숙원비,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23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구는오는 12월 구의회 회기 중 상정한 ‘2022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기안 단계지만, 북구는 ‘관례대로’ 8대 의원 1명당 주민 숙원사업비 명목의 3000만 원을 각 사업 부서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원·재량·포괄 사업비로도 불리우는 주민 숙원사업비는 지자체 회계에 따로 남지 않고 실·국 일반사업비 안에 일정 금액이 포함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배정 한도 내 각 사업부서에 나눠진 사업비를 재량껏 쓴다.

실제로 최근엔 주민 숙원 사업비 명목의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의 구체적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재점화됐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바꿔 여전히 ‘표심 얻기’에 쓰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구 의원의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투명한 편성·집행 절차를 거친 ‘쌈짓돈’ 성격의 예산을 지출의 합법적성, 형평성, 공익성을 따지지 않은 채 낭비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욱이 지난 17일에는 주민 숙원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자신의 이권까지 쟁긴 구의원이 불구속송치되면서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대서 의원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이 지인에 경영권을 넘겨준업체 등 2곳이 북구청 수의계약 수십여 건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기 의원은 자신 명의로 배정된 ‘주민 숙원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주로 계약 입찰 비위를 저질러 이권을 쟁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올 한해 주민 숙원 사업비(6000만 원) 편성을 고사했다. 기 의원을 비롯한 2명을 제외한 북구의원 18명은 모두 자신 봇으로 사업비를 쟁겼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실 정치에서 표심이 절박한 의원들로선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다. 전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곧바로 예산 집행에 반영하므로 순기능도 있다. 다만 납품·공급업체 선정 등 절차에선 투명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안마 의자 지출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업비 편성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주민 숙원 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 편성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긴급한 민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편성 취지가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사업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위법성 소지 등을 감안해 편성 여부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주무 부서가 관련 조례에 따라 경로당 비품 지원·시설 개선에 드는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근거로 자기 봇의 ‘주민 숙원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지출토록 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업체 선정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하며 같은 안마의자 기종인데도, 납품 단가 차이가 발생하면서 ‘의원 쌈짓돈’을 들려싼 온갖 잡음을 낳았다.

해당 예산은 말 그대로 ‘의원 재량’에

따라 쓰인다. 실제로 안마 의자 외에도 게이트볼 장비, 반신욕기 등을 구입하는 데에도 썼다.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자신의 아파트 놀이터·체육시설 개보수와 환경 정비에도 ‘생색내기’로 예산을 지출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도 예산 쓰임새·범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재량으로 쓰이는 ‘포괄사업비’가 예산 오·남용을 불러온다는 점을 우려, 편성 폐지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이름만 주민 숙원 사업비로

“광주 병설유치원 통폐합시 법적 대응”

광주 교육시민단체 “관심·홍보 필요”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025년까지 36개원으로 통폐합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정책을 계속해 추진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별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공교육을 신뢰하고 보낸 병설유치원 학부모·교사와 교원·학부모단체와 연대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 효력정지 거부 청원 등 법적 대응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이 통폐

합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는 원거리 통학과 원아 수면 부족, 또래관계 부적응과 정서적 불안정, 과밀학급, 코로

나19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 통합교육(혼합반) 가치 실종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연령 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와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한다.

대상은 전체 124개원 중 92개원이다. 2022년 12개원을 4개원, 2023년 29개원을 12개원, 2024년 38개원을 14개원, 2025년 13개원을 6개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 한라장사 등극

개인통산 9번째 우승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9월 17일부터 충남 태안에서 열린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오창록이 한라장사에 오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오창록장사는 16강전과 8강전에서 각각 이광재(구미시청)와 박정진(광주시청)을 2대0으로 누르고, 준결승전에서 남원택(영월군청)을 2대1로 제압한 데 이어, 대망의 결승전에서 이국희(증평군청)를 3대1로 꺾고 개인통산 9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오창록장사는 지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와 해남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올해 3관왕에 오르게 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석권함으로써 명실상부 한라급 최



강자임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총 41회 우승을 달성하여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으로써 압도적인 명성을 이어나갔다.

/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광양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여부와 별개로 모든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 배차시간이 길어 이용이 쉽지 않았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일반택시가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요청이 들어올 때 서비스하는 택시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일반택시가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요청이 들어올 때 서비스하는 택시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브랜드 사용 허가 시 제품의 포장재

경북교육청, 학생 사회성 결손 회복에 6억

600학급 선정, 학급별 100만원씩

경북교육청이 23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학급 자율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운영을 희망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600학급을 선정해 학급별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급은 등교 축소로 하지 못했던 또래활동, 놀이활동, 사제동행활동, 학교 안과 밖 체험활동 등 사회성 함양을 돋는 다양한 학급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양시 바우처 택시 10대 도입

나주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전라남도 나주시는 로컬푸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사용허가 품목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오’는 지난 2012년 한국디자인 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나주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다. 지역 명칭에 ‘놀라움’, ‘기쁨’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 ‘오’(Oh)를 조합한 합성으로 2015년 상표 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사용 허가는 매년 4월 브랜드 사용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2년 간 적용받는다.

브랜드 사용 허가 시 제품의 포장재

‘우리 모두 다 함께’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운영되며 방과후, 주말, 방학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외에도 가능하다. 지역 및 학급 여건, 운영 목적, 대상 학생의 특성에 따라 소모임(5명 내외)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85.7%, 교사 87.6%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사회성 함양을 우려한 바 있다.

교육부의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나주시, ‘나주오’ 사용허가 품목 확대

나주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전라남도 나주시는 로컬푸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사용허가 품목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오’는 지난 2012년 한국디자인 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나주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다. 지역 명칭에 ‘놀라움’, ‘기쁨’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 ‘오’(Oh)를 조합한 합성으로 2015년 상표 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사용 허가는 매년 4월 브랜드 사용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2년 간 적용받는다.

브랜드 사용 허가 시 제품의 포장재



나주시, 농·특산물 브랜드 ‘나주오’

또는 포장용기의 색상, 크기에 맞춰 로고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부착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나주오 브랜드 사용이 허가된 품목은 나주시 공동조합법인, 나주배원예농협, 알곡영농조합법인 등 총 3개소, 26개 품목이다. /전남=김태수 기자